

점심먹고 심심하면 생활과 윤리

# 점심생운 꼬꼬영판

· 3월 3주차 ·



문항편

일주일에 5문항으로 가볍게 끝내는  
생활과 윤리 주간지!

“Are You Ready For This?”

# 점심생운 3월 3주차

## 점심생운™

김지호 (저동고)  
권예림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김영우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류성민 (건국대 철학과)  
배민경 (성신여대 교육학과)  
안재현 (건국대 경영학과)  
양승언 (강원대 윤리교육과)  
유영우 (대인고)  
이동욱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이현승 (울산여고)  
진해인 (교육학 전공)  
탁성용 (서울시립대 철학과)  
홍찬혁 (인하대 경영학과)  
김보민  
문인성  
서지영  
이수진

외 1인

퍼낸일 2024년 03월 17일

퍼낸곳 점심생운™

저자 점심생운™

문의 EMAIL\_ lunchethics01@gmail.com | INSTAGRAM\_ @lunchethics

점심생운은 질 좋은 자료를 무료로 배포함에 있어 교육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점심생운™에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으로 게시·가공·판매할 수 없습니다.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점심먹고 심심하면 생활과 윤리

# 점심생운 모모영관

· 3월 3주차 ·

문항편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제( )선택

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최대 행복의 원리는 도덕의 기초로서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최대 행복의 원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다.  
 을: 행복주의자는 행복이야말로 인간이 유덕하게 행위하는 본래적인 동인이라고 본다. 내적 법칙 수립의 자유 원리 대신에 행복 원리가 도덕 원칙으로 세워진다면 그 귀결은 모든 도덕의 조용한 죽음이다.

- ① 갑: 정상적인 인간은 양이 적더라도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선호할 것이다.
- ② 갑: 행위 규칙이 아닌 개별 행위의 결과에 유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
- ③ 을: 나를 제외한 모두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된다.
- ④ 을: 자신이 뜻한 행위의 결과를 고려함으로써 경향성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결코 존경은 얻을 수 없다.
- ⑤ 갑, 을: 어떤 행위가 행위자의 쾌락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그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2. (가)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E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군주가 국가를 위해 살인을 범한 자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는 법의 테두리에서 안전하게 산 것이고, 생명은 국가가 조건부로 준 증여물이기 때문이다.</p> <p>을: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을 모든 가혹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사회가 해체되더라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만 할 것이다.</p> <p>병: 범죄로 인한 이득이 아무리 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대가로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할 것을 택할 자는 없다. 따라서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무언가가 필요하다.</p>
(나)	

- ① A: 사형은 시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 ② B: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을 의욕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③ D: 형벌권은 보편적인 당위의 원리를 기본 이념으로 두고 있음을 간과한다.
- ④ F: 사형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의무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⑤ C, E: 형벌에 대한 동의는 개인의 생명을 처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간과한다.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소유 권리의 정당성은 취득과 이전, 교정의 과정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의 소유 권리가 정당하다면 그 사회의 분배도 정의롭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분배 결과에만 관심을 두어 소유 권리의 역사성을 간과한다.

을: 사회의 기본 구조는 정의 원칙들의 순서에 따라 평등한 자유에 위배 되지 않게 부의 불평등을 배정해야 한다. 그런데 공리주의를 사회 기본 구조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으면 후속하는 다른 기준들은 불필요하게 된다.

— <보 기> —

- ㄱ. 갑: 개인의 천부적 자산을 공동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 ㄴ. 갑: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
- ㄷ. 을: 사회적 재화의 분배는 모두의 이익이 증진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ㄹ. 갑, 을: 정의의 원칙은 사회 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기아의 원인은 인구 과잉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다. 선진국 사람들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넘쳐나는 식량을 원조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

을: 고통받는 사회는 팽창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반면에,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 즉 인적 자본과 기술 수준, 종종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데 필요한 물질적, 과학 기술적 자원을 결핍하고 있다.

- ① 갑: 모든 원조는 비용과 편익을 대비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갑: 원조를 통해 예방할 해악보다 원조 주체에게 가해질 해악이 크더라도 의무적으로 원조해야만 한다.
- ③ 을: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라고 할지라도 원조가 불필요한 사회가 있다.
- ④ 을: 국민의 복지에 무감각한 통치자들의 행동 변화는 인권 강조를 통해 유도할 수 있다.
- ⑤ 갑, 을: 원조는 윤리적 의무임과 동시에 조건부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5. (가)의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p>갑: 시민 불복종의 이론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그 사회는 대체로 질서 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사회이다.</p> <p>을: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수단이 실패했을 때 국가의 관심을 촉구하거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비폭력적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고,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lt;법 레&gt;</p> <p>□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p> </div>

<보 기>

ㄱ. A: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위법행위인가?  
 ㄴ. B: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부정의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충분조건인가?  
 ㄷ. B: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는 개인의 신념과 양립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ㄹ. C: 시민 불복종은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것이 오히려 인생이 풍요해지는 방법이다  
 - Immanuel Kant -

**#달을 만나기 위한 준비**

우주인은 달을 만나기 위해 매일같이 연습하고, 훈련하여 최소 4년동안 우주로의 여행을 준비합니다. 4년동안 우주인은 달에서의 생활을 훈련하는 것이 아닌, 오직 달까지 가는 여정만을 연습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우주선으로 걸리는 시간은 약 3일, 그리고 우주인이 투자하는 시간 1500여일.

**#행복의 조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좋은 성적을 받아 인정받는 것?  
 성공해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그런거 말고, 어떤 행동으로 나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가슴 속에 하나씩 뜨겁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자,  
 점심생윤™드림

**점심생윤™**

- ◎ 이메일 문의 (오류·오탈자·기타) : [lunchethics01@gmail.com](mailto:lunchethics01@gmail.com)
  - ◎ 인스타그램 : @lunchethics
  - ◎ 총괄 : 김 지 호 / 10인 이상의 비영리단체
- 점심생윤™은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꿈꿉니다.  
 점심생윤™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고지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점심생윤.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lunchethics. All rights reserved.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